

시각적 질감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소재의 체계적 분류

A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Focused on Visual Texture

박 영순 (Park, Young-Soon)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김 영인 (Kim, Young-In)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이 현주 (Lee, Hyun-Ju)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신 인호 (Shin, In-Ho)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최 선미 (Choi, Seon-Mi)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최 희승 (Choi, Hee-Seung)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기반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방법
- 1-3. 용어정의

2. 전통소재 분류기준에 대한 고찰

3. 전통소재의 수집

- 3-1. 건축 및 실내, 가구(家具) 소재
- 3-2. 의복 및 직물 소재
- 3-3. 예술 및 공예품 소재
- 3-4. 생활용품 소재

4. 전통소재별 질감의 분류

- 4-1. 금속재의 질감
- 4-2. 토재의 질감
- 4-3. 석재의 질감
- 4-4. 지재의 질감
- 4-5. 목재의 질감
- 4-6. 초재의 질감
- 4-7. 섬유재의 질감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디자인된 사물은 형태, 색채, 소재를 통해 그 의미나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소재는 촉각적·시각적 특성을 함께 지니므로써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좀 더 독특한 영향을 준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생활용품의 고안에 있어서 색채나 장식보다 소재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현대적 활용이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통 생활환경에서 사용된 소재를 수집하고, 그 표면에 나타난 질감적 특성에 의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민속촌 등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 전통소재가 표현된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전통건축 및 실내, 가구, 의복 및 직물소재, 예술 및 공예품, 생활용품 등 생활의 각 분야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소재의 총 사례 수는 543개였으며 이는 금속재, 토재, 석재, 지재, 목재, 초재, 섬유재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각 소재들의 사례 수는 금속재가 59개, 토재 115개, 석재 62개, 지재 73개, 목재 80개, 초재 47개, 섬유재 97개, 기타 10개였다. 각 소재들은 표면의 질감적 특성에 의해 성형방법과 표면장식으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각 소재들은 그 성형방법과 표면장식이 다양하고 독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소재별로 개발된 가공방법들에 의한 다양한 질감은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에게도 풍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bstract)

A designed object reveals its meaning and image through form, color and material. Among these three elements, material has more powerful influence with its tactile and visual characteristics. In Korea, traditionally materials itself were mainly used to design artifacts rather than various color or formal dec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and to classify them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exture. For this study, the pic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tifacts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museums and literature. Those are architectural and interior elements, furniture, cloths and textiles, arts and crafts.

Total of 533 collected artifact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metal, clay, stone, paper, wood, straw, fabric things. : 59 metal things, 115 clay things, 62 stone things, 73 paper things, 80 wood things, 47 straw things, 97 fabric things. Each materials were classified into its forming methods and surface treatment focused on the he characteristics of their surface texture.

Throughout this study, the uniqueness of forming method and surface treatment of each materials in Korea has been clarified. And furthermore the classification by this various traditional methods of materials will provide plentiful information and ideas to today's designers of the world.

(Keyword)

traditional material, texture, surface treatmen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사물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조형요소를 통하여 전체적인 의미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형태가 설명적 디자인 요소라면 색채나 소재는 감각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소재는 촉각적 자극이 시각적 자극과 함께 공감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소재를 통한 이미지 전달은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목재, 한지, 유기, 사기, 모시, 짚 등 질박하고 독특한 소재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소박한 소재는 한국의 전통적 조형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장식을 뛰어나게 하거나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소재 자체와 이를 통해 표현되는 질감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이루고 있는 소재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자연재료들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다양한 표면의 처리 방법에는 독특한 한국적 정서가 배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적인 환경이나 물품들은 그 소재나 질감에 의지하여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에 관한 연구에서 소재에 중점을 두고 그 특성이나 전통적 이미지를 탐구하려는 시도나 표면에 나타난 질감적 특성에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자연소재 및 가공소재를 의·식·주 각 분야별로 수집하고, 수집된 전통적 물품을 소재에서 나타나는 표면질감을 중심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질감에 의하여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재의 특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다른 디자인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있다.

1-2. 연구 방법

전통소재의 체계적 분류를 위해 우선 의·식·주 생활환경의 각 분야별로 사용된 전통물품을 조사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 논문, 학회지, 잡지 등의 문헌고찰과 민속촌, 사찰 등의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각 단계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통소재의 의미를 정의하고,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의·식·주 각 생활분야별로 사용된 전통소재를 조사 및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문헌연구방법과 현장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즉 건축 및 실내, 가구, 의복 및 장신구, 예술 및 공예품, 생활용품 등의 소재와 표면의 질감이 잘 표현된 사진의 수집과, 민속촌 등의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헌의 사진자료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다시 촬영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셋째, 수집된 전통물품의 표면 질감들은 일부분의 확대사진을 사용하여 공통된 질감을 나타내는 사례들로 재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된 질감을 나타내는 기준이 성형방법과 표면처리 및 장식(이후 표면 장식으로 표기)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를 각 소재별 공통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소재별 성

1) 이와 같은 분류는 성형방법이나 표면장식이 질감의 하위체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형방법이나 표면장식에 의하여 상이한 질감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형방법과 표면장식의 세부항목의 분류과정에 있어서는 조사된 문헌별로 각기 다른 분류체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각 소재별로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로 검증을 받아 진행하였다.

1-3. 용어정의

1-3-1. 전통소재

전통이란 특정 사회집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는 생활양식과 그 산물의 총합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생활양식과 그 산물의 총합체라 함은 각 분야별 생활양식 각각에 상호 공유하는 특성이 내재됨을 전제로 한다. 의·식·주를 포함하는 생활문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전통이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을 이루는 바탕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재란 광의로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고안의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의의 소재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재료 중 특정한 디자인을 위해 선별적으로 사용한 질감이 있는 재료로 그 의미를 국한 한다.

전통과 소재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전통소재란 수많은 자연의 재료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생활문화에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즉, 왕골은 자연소재이지만 이를 한국의 주생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돛자리는 전통소재로 간주한다. 또한 많은 자연 소재 가운데서도 전통문화의 적용을 통하여 한국적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재는 자연소재 자체라도 전통소재로 간주한다. 즉 석재는 자연소재이지만 맷돌을 만들기 위해 적절히 다듬어 놓은 석재는 전통소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소재를 우리 삶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하여 내려온 의·식·주 문화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한 재료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1-3-2. 질감

질감은 재료의 표면적 특성을 의미한다.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석재와 목재의 표면적 특성은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감을 인지하는 방법에는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 있으며, 시각적 질감은 촉각적 질감이 그 근원이 된다.

질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그대로 지면으로 옮길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면의 질감만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시각적인 질감이란 시각을 통해 느껴지는 재료의 표면상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시각적 질감에는 천연재료 그 자체에서 오는 느낌뿐 아니라 표면처리방법과 여러 장식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느낌까지도 포함한다. 색채를 제외한 재료의 표면적 특성에는 순수한 재료의 느낌 이외에도 다듬는 방법, 음각, 양각, 상감 등의 장식기법에 의한 독특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식은 또한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표현된 것이며, 재료의 특성을 제외하고 장식만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질감은 표면에 나타난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2. 전통소재 분류기준에 대한 고찰

전통소재의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전통

2) 이형재: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 p4, (1989)

소재를 한자리에 모아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다만 다수의 논문과 문헌에서 각각의 소재를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통소재에 대한 정의조차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각 소재의 하부체계에 대한 분류도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각 소재별로 분류된 기준은 다양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소재별 분류기준에 대한 관련문헌 분석결과

연구자	분류 기준							
	시대	지역	종류	용도	기법/기술	성분/원료	색상/형태	재료 명칭
금속재	이난영 (2000)	시대	금속재 종류		기법			
	홍정실 (1998)				금공술			
토재	김명란 (1998)		지역		장식 기법	흙성분		
	윤용이 (1996)					흙성분		
석재	신동준 (1998)			사용 용도			색상	
	정영호 (1998)		석조 미술 종류					
	박정근 외 (2000)		석조 미술 종류					
지재	주희정 (1996)		지역	용도		원료	두께, 크기, 염색	
	국립민속박물관 (1995)			사용 용도				
	임영주 외 (1996)		지공예 종류					이름
목재	김삼대 (1994)		나무 종류					
	박찬수 (1990)						목공예 형태	
초재	인병선 (1991)		초 종류					
	국립민속박물관 (1991)			사용 용도				
	조근태 (1995)		지역					
	이은복 외 (1998)		지역				재료	
섬유재	민길자 (1997)		섬유 종류					

금속재의 경우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이난영, 2000)에서는 금속재의 공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시대별 종류와 기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연장」(홍정실, 1998)에서는 금속재를 주로 연장에서 보여주는 금공술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건축·실내 부분과 도자기류에 주로 사용되었던 토재는 각 부분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도자 공예디자인」(김명란, 1998)에서는 소성온도와, 흙의 성분, 장식 기법, 지역과 특징에 따라 토재를 분류하였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윤용이, 1996)에서는 사용되는 흙과 소성온도에 따라 도자기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실내에서 사용되는 토재는 한옥, 초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특별한 분류 없이 소개되고 있었다.

석재는 전통적으로 석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활용품보다는 건축적 부분과 불교미술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석재 중에서도 양질의 화강암이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석재 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신동준, 1998)에서는 화강암을 색상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준 높은 석조문화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용되는 용도별로 석재를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석조미술」(정영호, 1998)과 「돌의 미를 찾아서」(박정근 외, 2000)에서는 석조미술 중심으로 석재를 분류하고 있었다.

지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종이인 한지를 통칭하는 말로, 「조형재료로서의 한지에 의한 내적 표현연구」(주희정, 1996)에서 지역별, 원료별, 용도별, 두께, 크기별, 염색에 따라 한지의 종류와 명칭이 분류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종이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5)에서는 사용용도별로 한지를 분류하고 있었고, 「종이 공예 문화」(임영주, 1996)에서는 종이의 옛이름과 지공예 종류로 분류하고 있었다.

주택과 생활용기, 가구에서 주재료로 사용되었던 목재는 공예품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통 목가구」(김삼대, 1994)에서는 나무의 종류별로 목재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불교 목공예」(박찬수, 1990)에서는 나무의 종류보다는 목공예 형태로 목재를 분류하고 있었다.

초재의 경우, 「풀문화」(인병선, 1991)에서 초의 종류별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벼농사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짚을 대부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짚 자체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에서는 짚을 생산도구, 생활용구, 세시풍속, 민속신앙 등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짚풀문화」(조근태, 1995)에서는 지역별로 소개되고 있었고, 「짚·풀 공예」(이은복 외, 1998)에서는 짚 풀 공예의 재료와 지역별 짚풀 공예로 분류하고 있었다.

섬유재는 보통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전통옷감」(민길자, 1997) 등 다수의 문헌에서 섬유의 종류에 따라 직물을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전통소재는 전체보다는 각 소재별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분류기준 역시 시대, 지역, 종류, 용도, 기법/기술, 성분/원료, 색상/형태, 명칭 등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통소재의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 및 소재에 의한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나 분류가 체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전통소재의 수집

전통소재의 분류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의·식·주 각 분야별로 사용된 전통소재를 수집하였으며 그 범위는 건축 및 실내, 가구, 의복 및 장신구, 예술 및 공예품, 생활용품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품목의 수는 총 533개였으며 이중 주택과 실내에서 86개, 가구에서 74개, 생활용품에서 176개, 의복 및 장신구에서 108개, 예술 및 공예품에서 89개가 수집되었다.

3-1. 건축 및 실내, 가구(家具)의 소재

3-1-1. 건축 및 실내

전통건축에 사용된 소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먼저 건축물의 구성요소를 실외와 실내로 나누었다. 실외의 경우에는 전통건축의 모든 종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단, 기둥, 벽체, 지붕, 담장, 대문의 6가지 요소별로 소재를 수집하였다. 각 요소별로 사용된 소재를 정리하면 기단에서는 흙, 기와, 벽돌, 막돌, 화강석, 자연암반이 수집되었고 기둥에서는 싸리나무, 소나무 등 목재가, 벽체에서는 석회, 사괴석, 막돌, 벗짚 등이 수집되었다. 지붕에서는 짚, 기와, 적송이나 전나무 널판, 들판, 참나무나 상수리나무 껍질, 대마껍질, 담장에서는 가시나무, 개나리, 싸리나무, 수수장, 대나

무, 통나무, 막돌, 흙, 기와편, 석회, 검은 벽돌이, 대문에서는 대목, 쇠, 가시나무, 싸리나무, 개나리, 수수강 등이 수집되었다.

건축구성의 6가지 요소 중 2차 자료를 조사한 후 자료 상태가 양호한 벽체, 지붕, 담장의 세 요소로 다시 구분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자료 조사 결과 벽체의 소재로는 자연석과 황토, 석회가 수집되었는데 자연석은 흙과 함께 마감되었고, 황토는 짙을 섞어 벽체에 이용되었으며, 석회는 분회로 잘게 부수어 백토와 고운 모래를 1:1로 섞은 상태로 이용되었다. 지붕에서는 기와, 굴피, 너와, 벗짚의 4 종류의 소재가 수집되었다.³⁾ 담장에서 발견된 소재에는 자연석, 전돌이 있었으며 자연석은 별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올려 사용하였고, 진흙과 규석질의 모래를 섞어 가마에 구워낸 전돌이 담 마감재로 사용되었다.

실내의 경우에도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구성요소와 장식요소별로 소재를 수집하였다. 실내의 바닥에는 기름먹인 유지(油紙)를 사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자 물을 콩담에 섞어 빛깔을 내었다. 그 외에도 흙, 천, 솔방울, 솔가루, 은행잎, 목재 등이 사용되었다. 실내의 벽에는 창호지와, 황토가 사용되었는데 사람이 거거하는 방에는 창호지가 사용되었고, 가사공간인 부엌에는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또 천장에는 목재와 회가 사용되었고 목재의 경우 결을 살려 마감하였다. 창호에는 창호지, 천과 함께 잣나무, 육송, 고금활엽수 등 목재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문헌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내를 벽, 바닥, 천장, 창호로 구분하였으나, 현존하는 실내공간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2차 자료의 경우도 그 수가 한정적이었으므로 자료 수집 과정의 한계를 보였다.

3-1-2 가구(家具)

전통가구에 사용된 소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통주택의 각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구들을 안방가구, 사랑방가구, 부엌가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에 사용된 소재로는 목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이에 기름마감, 자개에 흑칠마감, 주칠마감, 황칠, 흑칠, 가죽마감, 화각에 옷칠마감 등 표면마감에 의해 다양화되어 있었다.

3-2. 의복 및 장신구 소재

의복 및 장신구소재는 크게 의복에 사용된 의류 소재와 의복을 제외한 기타 복식류에 사용된 소재, 그리고 그 외 생활용품의 소재로 구분하였다. 의복에 사용된 주소재에는 주, 사, 라, 단, 금, 베, 무명, 모시와 같은 섬유계가 대부분이었으며 제직, 부직, 매듭, 이어붙이기, 자수, 금박, 엮기 등의 가공방법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의류를 제외한 기타 복식류와 생활용품에는 말총을 비롯한 섬유재와 가죽, 털, 짚, 종이, 어피, 대나무, 옥, 금, 은, 비취, 우각 등이 사용되었다.

3-3. 예술 및 공예품 소재

우리의 예술품 및 공예품에 사용된 전통적 소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예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고분미술, 궁중유물, 금동불, 금속, 나전칠기, 범종, 불상, 장식과 자물쇠, 화폐, 사리구, 유기, 도자기, 토우, 옛

3) 기와는 약간 차진 점토질의 흙을 반죽 성형하여 가마에 구워서 만든 건축재료이다. 굴피와 너와는 모두 목재로, 굴피는 상수리나무 밑둥에서 자라난 껍질이며, 너와는 일정 크기의 소나무 관재를 말한다. 벗짚은 농경생활의 산물로서 짚으로 엮고 이염을 만들어 지붕의 마감재로 이용했다.

기와, 분청사기, 미루불, 전통문양, 석공예, 목공예, 종이공예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예술품 및 공예품에 사용된 주재료에는 옥, 화강석, 주석, 청동, 황동, 금, 은, 철, 백철, 유리, 백토, 점토, 오색전지, 유약, 나무, 대나무 등 석재, 금속재, 목재, 지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3-4. 생활용품 소재

생활용품은 가구나 의류, 예술·공예품에 속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품으로 주생활용품과 식생활용품, 의생활용품, 상업용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용품들이 있으며 소재에 따라 목재류나 초재류, 철재류, 종이류, 유기류, 피혁류, 죽제품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목재류로는 함, 목침, 나막신 등이 있고 초재류에는 골풀로 만든 부채, 짚신, 실꾸리 등이 있으며, 종이류에는 지장갓, 지승그릇, 지승신골 등 종이로 만든 모든 제품을 들 수 있다. 또한 장독이나 사발, 식생활용품인 유기류, 가죽신, 망건, 갓과 같은 피혁류와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 곰방대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의·식·주 생활환경의 각 분야별로 전통소재를 수집한 결과 총 79종류의 소재가 수집되었으나 같은 소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중복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소재를 자연 그대로의 재료 종류별로 재분류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질감의 차이는 재료의 종류에 따르기 보다는 그 표면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을 파악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결과 <표 3>과 같이 성형방법과 표면장식기법으로 대별되는 76가지의 표면처리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소재별로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표 2] 조사대상별 소재종류

수집된 영역	소재 종류								소재종류 개수 (수집된 자료의 수)
	철	기와, 벽돌, 석회, 굴림, 백토, 황토	막돌, 화강석, 사괴석, 전돌	창호지, 장판지	일반 목재, 대나무, 굴피, 너와	벗짚, 검짚, 수수강, 싸리 나무	비단, 모시	솔방울, 솔가루, 은행잎	
주택 실외									19 (52)
주택 실내	무석	석회, 황토		창호지, 장판지	일반 목재		비단, 모시	솔방울, 솔가루, 은행잎	11 (34)
가구	무석, 주석, 백동, 등			한지	일반 목재, 대나무				7 (74)
생활용품	동, 철, 금, 은			한지	일반 목재, 대나무	버드 나무, 골풀, 벗짚	비단, 면, 마	피혁류	14 (176)
의복 및 장신구	금, 은		옥, 비취	한지	대나무	벗짚	비단, 무명, 마	말총, 가죽, 털, 어피, 우각	15 (108)
예술 및 공예품	동, 금, 은, 철	백토, 점토	옥, 화강석, 암반		일반 목재, 대나무			유리	13 (89)
소재종류 개수 (수집된 자료의 수)	16 (50)	10 (115)	9 (62)	5 (73)	13 (80)	9 (47)	8 (97)	10 (10)	79 (543)
분류된 소재	금속재	토재	석재	지재	목재	초재	섬유재	기타	

[표 3] 조사대상별 표면처리방법

	표면처리방법		개수
	성형방법	표면장식	
주택 실외	적석, 짜맞추기, 깎기, 엮기, 다듬기, 형틀	칠	7
주택 실내	짜맞추기, 원지붙이기, 다듬기	바르기, 붙이기	5
가구	지장, 짜맞추기	양각전지, 칠, 나전, 회각, 낙죽, 표면조각, 오색전지	9
생활 용품	단조기법, 주조기법, 판금기법, 손성형, 틀레, 다듬기, 지승, 지호, 지장, 짜맞추기, 구부리기, 깎기, 꼬아엮기, 채상	표면조각, 상감, 칠보, 유약, 입체 장식, 오색전지, 장지, 양각전지, 염색, 지수, 칠, 나전, 회각, 낙죽, 색실엮기	29
의복 및 장신구	채상, 꼬아엮기, 제작, 부직, 매듭	칠보, 장지, 염색, 지수, 누비, 금박, 이어붙이기	12
예술 및 공예품	틀레, 조각, 적석, 판금기법, 주조기법, 깎기	유약, 상감, 표면장식, 입체장식, 표면조각, 입체조각, 칠보, 칠	14
개수	36	40	76
	성형방법	표면장식	

4. 전통소재별 질감의 분류

이상에서 문헌고찰에 의한 전통소재의 분류기준과, 실제로 수집된 소재의 재료별 특성에 의한 한 분류기준, 그리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설정한 질감 특성에 의한 분류기준을 종합하여 수집된 전통소재를 분류하였다.

우선, 건축 및 실내, 가구에서의 재료와 예술 및 공예품, 생활용품 등에서 수집된 전통소재를 중복됨이 없게 분류하기 위해 금속재, 토재, 석재, 지재, 목재, 초재, 섬유재, 기타의 8가지 소재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기타부분은 사용빈도가 각각 1개씩 수집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총 543개의 자료 중에서 기타를 제외한 7가지 소재별로 재분류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속재 59개, 토재 115개, 석재 62개, 지재 73개, 목재 80개, 초재 47개, 섬유재 97개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소재는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각각의 제작기법, 지역,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각 소재별로 표면에서 지각되는 질감적 특성에 근거하여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소재의 표면 처리방법에 의해 분류하였다. 소재의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은 크게 성형방법에서 비롯된 것과 표면 장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이 두 방법이 표면의 질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대별해 놓은 문헌은 없었으나, 연구과정에서 각 소재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질감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무리가 없음을 검증 받았다. 따라서 금속재, 토재, 석재, 지재, 목재, 초재, 섬유재의 전통소재를 성형방법과 표면장식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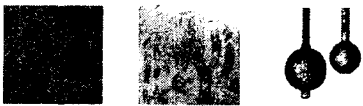
4-1. 금속재의 질감

전통적으로 금속재는 공예품이나 생활용품, 농기구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재료상으로 금, 은, 동, 철, 주석, 청동, 유, 백동 등으로

4) 본 연구에서 분류한 표면처리방법의 명칭은 대부분 기존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명명하였으나, 특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명하였다. 즉, 초재의 경우, 엮기나 꼬기 등의 명칭은 구성 방법으로 설명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엮기라든가 꼬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초재를 분류한 바는 없다.

분류되었으며 그 중 그릇류 등 일상생활에는 놋쇠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 금속재는 나름대로의 물성(物性)이 있기 마련이어서 각 특성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강구되어 왔다.5) 금속재의 질감 특성 중 성형방법에 의한 것은 단조, 주조, 판금기법으로 구분하였고, 표면장식에 의한 것은 조각, 상감(입사), 칠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6)


[표 4] 금속재의 질감 분류 1

금속재의 성형 방법	단조 기법	합금된 금속을 불에 달구어 메질(망치질)을 되풀이해서 얇게 늘어가며 여러 형태를 만드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대야, 요강 등 육식용품과 주전자, 밥통, 약탕기, 손가락 등 주방용품에서 나타남		
				
금속재의 성형 방법	주조 기법	우선 만들고자하는 제품에 알맞은 배합비율로 합금한 쇠물을 미리 제작한 틀에 붓고 완전히 냉각시킨 다음, 틀에서 꺼내어 표면과 세부를 다듬어서 마감하는 금공(金工)기법. 수집된 자 료를 살펴보면 주로 범종, 향로를 비롯해 마패, 엽전 등의 제 작에 이 기법이 사용되었음		
				
금속재의 성형 방법	판금 기법	얇고 넓은 금속판을 오리거나 메질(망치질)하여 여러 형태를 만드는 기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촛대, 풍경, 금관 등에 사용되고 있었음		
				
금속재의 표면 장식	표면 조각	금속 소지의 표면에 미리 무늬를 그리고 정을 이용하여 파내 거나 쏘아서 그림, 글씨, 문양, 사물의 형상 등을 새기는 가공 방법으로 주로 합, 통귀쌈, 자물쇠 등에 사용되었음		
				
금속재의 표면 장식	상감 (입사)	금속 소지의 표면을 파내고 그 자리에 다른 소재의 금속을 끼 워 넣어 장식하는 기술로서 면을 파고 끼워 넣는 방법. 입사 방법에는 금속의 표면에 미리 무늬를 그리고 정을 이용하여 파내어 이 파인 홈에 금실, 은실이나 얇은 판을 끼워 넣는 방 법의 끼움입사 방법과 먼저 금속표면에 쪼음정으로 촘촘히 쪼 음질한 후 그 위에 금실과 은실이나 얇은 판을 두드려 박아 넣는 쪼음입사 방법이 있음. 자료 수집 결과 주로 향로, 칠퇴, 검 등에 상감이 나타나고 있었음.		
				

5) 홍정실: 한국의 연장, 한국야금 주식회사 (1996)

6) 이호관: 한국의 금속공예, 문예출판사(1997)의 P395에 의하면 금속공예의 제작기법으로 성형기법과 조금기법으로 분류하고있는데, 성형기법으로는 주조기법(사형, 뇌형, 석형, 안틀끼우기), 단금기법(단조기법, 추기법, 판금기법)이 있으며, 조금기법으로는 선형기법(점선조기법, 모조기법, 취조기법), 여자문기법, 상감기법이 있다.

[표 4] 금속재의 질감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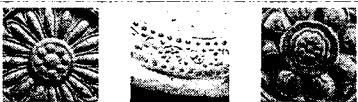

금속재의 표면장식	<p>금속소재 표면에 무기물질의 유약을 유기질이 되도록 기열하여 금속소재에 입혀서 용융한 산화물로서 금속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표면의 색감이나 광택을 보존함. 또한 산, 가스, 습기 등에 대하여 내식성이나 내수성이 있으며 형체에 따라 강도를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소성가공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종류와 기법에는 무선칠보와 유선칠보로 분류됨. 주로 향로, 합, 대접, 그릇, 화병 외에도 반지 등 장신구에 사용되었음</p>
	

4-2. 토재의 질감

토제품에는 점토의 종류, 용도, 크기, 원료의 차이, 건조방법 또는 유약의 종류, 소성온도와 과정에 따라 약간씩의 변동이 있으나, 크게 나누어 제도(製土), 성형(成形), 건조(乾燥), 장식(裝飾), 초벌구이, 시유(施釉), 제벌구이의 단계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도자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청자, 조선백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은 모든 사물을 칭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성온도와 유약의 유무로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구분한다.)


토재의 질감 중 성형방법에 의한 것은 손성형, 물레, 형틀로 구분하였고, 표면장식에 의한 것은 유약, 상감, 표면조각, 입체장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토재의 질감 분류 I

토재의 성형방법	<p>수공에 의한 방법으로, 손가락과 대나무, 칼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간단한 방법. 이 방법은 균형잡힌 형을 만들어내는 곤란하지만 작가의 창의와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예가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 주로 장식용 토기나 향아리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p>
	
	<p>물레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물레의 회전을 이용하여 둥근 형태의 도자기를 얻는 성형기법으로 대접, 접시, 반합, 주전자, 찻잔 등 식기용품과 도자기 제작시에 주로 사용되었음</p>
	
<p>기물의 외부모양을 가지는 석고형에 점토를 넣고 석고형을 회전시키면서 기물의 내부모양을 가지는 형틀로 점토를 석고형에 밀착시키면서 기물을 만드는 기법으로 주로 기와 제작에 사용되고 있었음</p>	
	
토재의 표면장식	<p>도자기의 표면에 얇게 씌워서 광택과 색채 또는 무늬를 내어 주는 유리질의 분말을 말하는 것으로 초벌구이 후 기물 표면에 유약을 발라 재벌구이 함. 유약은 실용적·미적인 목적, 그리고 단열·단전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데 주로 강도를 높여주고 위생적이며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음</p>
	

7) 정동훈: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1994)



[표 5] 토재의 질감 분류 II

토재의 표면장식	<p>상감</p> <p>무늬의 윤곽선에 백토나 자토를 넣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금속소재의 상감(입사) 방법과 상통함. 그러나 여기서의 상감은 유약을 씌워 번조한 것을 말하며 주로 대접, 합, 도자기 등에서 나타났음</p>
	
	<p>표면조각</p> <p>성형을 한 후에 기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으로, 주로 조각도에 의한 조각기법을 말함. 이러한 조각기법에는 상감, 투각, 음각, 양각, 인화문기법 등이 있으며 주로 꽃이나 나무, 새, 짐승, 구름 등의 문양을 새겨 넣는다. 장식용 토기, 향아리, 병 등에 주로 표면조각이 사용되었음</p>
	
<p>입체장식</p> <p>성형을 한 후에 기물의 표면에 점토를 붙여가며 제작하는 기법으로 주로 장식용 토기, 향아리 등에 나타났음</p>	
	

4-3. 석재의 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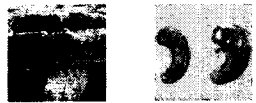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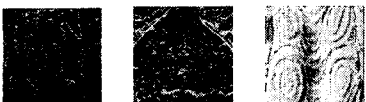

한국에는 전국에 걸쳐 순백 양질의 화강석이 대량으로 분포되어 일찍부터 석조 기술이 발달하였다. 예술의 주된 소재였던 불교 미술도 석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석탑이나 석등, 석비, 석교, 석조(石槽), 석수(石獸) 및 민속공예전반에 걸쳐 석재가 사용되었다. 일상용품에는 파고 새기기 쉬우며 때로는 불에 강해야 하기 때문에 곱돌이 많이 사용되었고, 문방용품 중 벼루는 연석이라는 석재로 사용되었으며, 장신구는 옥이나 수정 및 기타 보석으로 깎고, 악기 역시 특수한 석재로 사용되었다. 또한 섬세한 세공을 요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신앙물은 화강석이 널리 사용되었다. 거칠게 쓰이는 민구도 화강석으로 만들었으나 다듬잇돌, 솥돌, 도가니 등은 그 용도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돌을 사용하였다. 석재의 질감을 이루는 성형방법에는 다듬기, 적석, 조각, 기타 등이 있고, 표면장식으로는 표면조각, 입체조각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석재의 질감 분류 I

석재의 성형방법	<p>다듬기</p> <p>매만져서 맴시를 내다라는 뜻과 땅바닥을 고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유추된 것으로 석재의 표면을 고르게 성형하는 기법. 맷돌, 벼루, 화로, 합, 화돌 등 석재를 마모시키거나 재단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든 석물이 이에 해당함</p>
	
<p>적석</p> <p>돌을 쌓는 것으로 자연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재단하거나, 판석을 이용하여 쌓는 방법이며 주로 서낭당의 들머더기, 담장, 탑 등을 세울 때 사용되는 방법임</p>	
	

8)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4)

[표 6] 석재의 질감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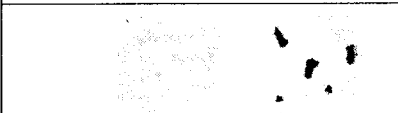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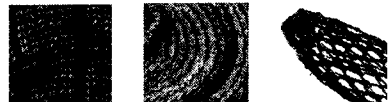




석재의 성형방법	조각	물체의 표면을 가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으나 도구를 개발한 이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방법이 되었음. 각종 조각도나 수공구,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재질의 변화와 표면의 요철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나타내는 것임. 여기서는 물체의 형상을 전부 두드러지게 새기는 조각법인 환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불교조각상이나 석등 등에서 볼 수 있음	
	기타	위의 내용 외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고인돌과 같은 석물이나, 장신구 세공에 이용된 옥돌 등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고인돌이나 자연 암반 등의 질감은 가장 거칠게 나타나며 육은 정교한 세공과정을 거치므로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지님	
석재의 표면장식	표면 조각	표면조각에는 양각, 음각, 투각이 있는데 양각은 나타내고자 하는 형상을 볼록하게 새기는 방법이며 음각은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움푹하게 파내어서 새기는 방법. 투각은 조각기법의 하나로서 재료를 뚫어서 조각하는 것으로 물체의 공간감을 살리고 문양의 사실감을 표현하는 방법. 표면조각은 주로 암각 하나 불상 등에 나타났음	
	입체 조각	석재의 표면 한 부분에 입체의 형상을 새기는 방법으로 부조가 이에 해당함. 부조란 조각의 한 기법으로 모양이나 형상을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며 양각에 비하여 보다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표면장식 기법. 모두 평면을 배경으로 하여 한 면에 입체적인 상을 새기는 것이며 성형한 석재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나타남. 입체조각은 주로 불상이나 석탑 등에서 볼 수 있었음	

4-4. 지(紙)재의 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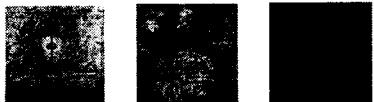
종이를 이용하여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기예 및 그 제품을 총칭하여 지공예라고 하는데, 이는 장, 농, 함, 방석과 같은 가정용품과 표주박, 화살통과 같은 휴대품, 지의, 갓모 등의 복식류, 지화, 연화와 같은 연회·의례용품 전반에 고루 이용되었다. 지공예품은 내구성이 있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질감, 친근한 자연빛깔로 인해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었다.9) 이처럼 종이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각종 용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기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전통시대의 종이조형기법은 크게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기름바르기, 종이 오려 붙이기, 종이꽃 만들기, 종이끈 꼬아 엮기 및 종이풀로 형태뜨기 등이 있다. 이들 기법간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재의 성형방법으로 원지붙이기, 지승, 지호, 지장을 다루었고 표면장식에는 오색전지, 장지, 양각전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9) 임영주 외: 종이 공예 문화, 빛깔있는 책들 (1996)

[표 7] 지재의 질감 분류 I

지재의 성형방법	원지 붙이기	다양한 종류의 한지를 종이의 질감이 드러나도록 사물에 부착시키는 방법을 말함.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벽, 바닥, 천장, 창호 등의 마감방법으로 사용되었음	
	지승	종이를 꼬고 그것을 엮어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는 엮는 방법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색지나 검은 풀을 들인 종이를 함께 넣어 엮기도 함. 또한 무늬뿐만 아니라 외형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어 갖가지 형태를 만들어 낸다. 마무리를 할 때에는 기름을 먹이거나 칠 또는 채색을 하기도 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리, 방석, 망태기, 바구니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됨	
지재의 표면장식	지호	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물과 섞어 일정한 틀에 부어 넣거나 덧붙여 이겨 만드는 기법. 이렇게 만든 기물은 말린 후에 종이를 덧바르고 기름을 먹이거나 칠을 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종이가면이 대표적인	
	지장	종이를 여러겹 발라서 두터운 종이인 후지를 만들어 그릇 형태를 이루고 그 표면에 기름을 칠하거나 옷칠을 올려 완성하는 방법과 대 또는 나무편재로 골격이나 기형을 만든 다음 그 안쪽에 종이를 두세겹 발라서 기물형태를 이루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는 부채, 상자, 반전고리, 서류함, 안경집, 붓통 등이 있음	
지재의 표면장식	오색전지	여러 가지 색지를 오려서 무늬를 만들고 기름에 장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층농과 같이 가구 표면에 사용되거나 상자, 부채 등의 표면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장지	기물에 한지를 두세겹 바른 뒤 검정색의 두꺼운 장지나 누른 색의 장지를 바름. 그 바탕에 옷칠이나 콩덥으로 마감하는데 이때 대개는 무늬를 붙이지 않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때 장지는 무당투구나 안경집, 지신 등에 사용되고 있었음	




[표 7] 지재의 질감 분류 II

지재의 표면장식	광각 전지	합지된 한지와 나무판재로 뼈대를 만들어 골격을 짜 주었으며 기물의 표면에 두세 겹의 한지를 붙인 뒤 약 1밀리미터 두께의 종이로 무늬를 오려 붙이고 그 위에 주로 짙은 색상의 한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요철부분이 뚜렷하게 처리되어 작품의 무늬가 처리됨. 주로 농이나 서류함, 옷함 등에 사용됨
		

4-5. 목재의 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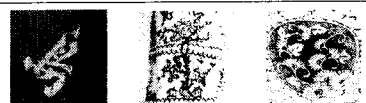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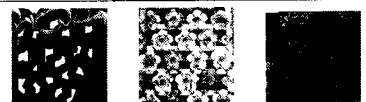
목재는 전통적으로 목조건축, 목가구, 목공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목조건축에서 사용된 목재는 나무, 너와, 굴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나무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결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되었다. 목가구에 사용된 목재는 주로 나무의 종류별로 분류되었으며 참죽나무, 오동나무, 피나무, 소나무, 호두나무, 떡감나무, 배나무 등이 그 예이다.¹⁰⁾ 목공예는 특히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찰 건축의 기본적인 골격에 덧붙여지는 바닥에서 기둥, 난간, 서가래,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식 조각이 목공예의 정수를 이룬다. 이러한 목재의 성형방법에는 짜맞추기, 구부리기, 깎기(조각) 등이 있고, 표면장식에는 칠, 나전, 화각, 낙죽, 표면조각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목재의 질감 분류 I

목재의 성형방법	짜맞추기	짜임새나 이음새라고도 하는 기법으로 우리 나라 주택의 가구법(架構法)에 사용되는 과학적이며 정밀한 공정을 말함. 판재의 짜임으로는 시개짜임, 맞짜임, 연구짜임 등의 방법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한옥의 지붕, 천장이나 가구에서 사용되고 있었음
		
	구부리기	곡목(曲木)기법이라고도 하며 곡면의 부재를 얻기 위해서는 적송목이나 판재를 띠름으로 켜는 것, 목재를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조임쇠를 이용하여 휘는 것, 생재(生材)의 결에 따라 성형틀에 넣어 등기처리를 하면서 휨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음. 구부리기는 주로 활이나 바구니, 키를 제작하는데 사용됨
		
	깎기(조각)	목재에서 물체의 표면을 가공하는 원시적인 최초의 방법으로 나무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한 이래로 가장 일반적인 성형법. 이는 각종 조각도와 수공구,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재질의 변화와 표면의 요철을 만들어 물체의 표정을 나타내는 것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장식품에 깎기의 성형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음
		

10) 배만실: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980)

[표 8] 목재의 질감 분류 II

목재의 표면장식	칠	광범위한 의미에서 목공예의 표면 도장용 칠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칠이라는 말은 옷칠 그 자체와 모든 도장(塗裝)의 의미를 함께 지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주칠(朱漆), 흑칠(黑漆), 황칠(黃漆)로 나누어 찾아보았으며, 금판을 얇게 만들어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금부는 주로 불상에 많이 사용되었고 여기에서는 칠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나전	칠공예의 한 장식기법인 나전은 얇게 갈아낸 패각을 어떤 형태의 무늬 모양대로 오려내 어 기물의 표면에 감입(嵌入)시켜 꾸미는 것을 통칭함. 따라서 패각만이 아니라 대모(玳瑁), 상아(象牙), 호박(琥珀), 보석(寶石) 따위를 새겨넣어 장식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나전이라 함. 나전 기법에는 나무비탕을 직접 새겨 삼각한 감입기법과 전복껍질을 깨서 넓은 판재를 만들어 문양을 만드는 타발법이 있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상자나 경대, 농 등의 표면 마감에 사용되고 있었음
		
	화각	쇠뿔의 맑은 부분을 퍼서 투명한 종이장처럼 깎은 뒤 거기에다 오채(五彩)의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넣어 나무 위에 부착시킴으로서 목기를 매우 화려하게 꾸미는 기법. 이런 화려할 때 문에 베킵모와 빛, 실패, 바느질자, 부채 등에 흔히 이용되고 소형의 함, 농, 경대와 같은 여성용품에 한하여 만들고 있었음
		
	낙죽	죽공예의 기법 중의 하나로 인두로 지지거나 불에 그을려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방법을 말함. 대개 대나무를 잘게 빼개어 목골 백골(白骨)위에 죽장(竹漿)하고 그 표면을 인두로 지지서 무늬를 올리기도 하며 붓통이나 부채, 필통, 실패 등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었음
		
	표면조각	양각, 음각, 투각이 있는데 양각은 표면에 장식이 되는 주제를 놓아두고 조각해 들어가는 기법이고 음각은 표면에 원각, 삼각각, 창칼을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도안의 선을 따라서 조각하는 기법임. 투각은 조각기법의 연장으로서 목재의 판을 뜯어서 조각하는 것으로 물체의 공간감을 살리고 문양의 사실감을 표현하는 표현법.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상, 편, 고비, 다식판, 필통 등에 사용되고 있었음
		

4-6. 초재의 질감

초재를 초의 종류별로 나누면 짚과, 경기도 김포지역의 도롱이에 사용되는 부들,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새(띠, 억새풀) 등이며 갖가지 풀들, 짚, 칩, 왕골 같은 것들이 짚과 섞여서 사용되어 왔다.¹¹⁾ 예전부터 벼농사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초재 중 대부분

11) 인병선: 질문화, 빛깔있는 책들 (1989)

짚을 사용한 건축과 생활도구가 발달되었다. 그러므로 짚을 초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초재를 분류하는 것보다 짚 소재 자체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는 초재의 성형방법에는 엮기, 꼬아엮기, 채상 등이 있고 표면 장식에는 염색(채색), 색실 엮기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초재의 질감 분류

초재의 성형방법	엮기	새끼, 실노끈 따위로 이리저리 여러 가닥을 어긋매겨 묶거나 물건을 엮기설기 맞추어 매어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초가지붕이나 울타리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되었음	
	꼬아엮기	2가닥, 3가닥, 여러 가닥의 초재를 한 줄이 되게 비벼 꼬아 길게 이어진 새끼 따위를 어긋매겨 맞추어 매어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짚신 외에 종다래끼, 삼태기, 계란 바구니 등 물건을 담은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음	
	채상	질 좋은 대나무를 쪼개어 가늘고 매끄럽게 다듬어서 이것을 엮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여러 종류의 바구니 제작에 사용되고 있었음	
초재의 표면장식	염색(채색)	보릿짚, 밀짚, 대나무 등에 굵기 물을 들어 장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수집에 자료에 의하면 주로 부채, 짚신, 방석, 바구니 등의 장식에 사용되고 있었음	
	색실 엮기	색실이나 염색된 헝겊을 초재와 함께 엮는 방법으로 자루꽃이나 등구미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음	

4-7. 섬유재의 질감

오랫동안 민족의 복식과 생활용품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옷감을 포함한 개념인 직물을 우리는 보통 전통직물이라 한다. 세계 각 지역의 전통직물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 풍토, 생활문화, 정치, 경제, 타지역과의 교류를 비롯한 여러 여건 하에 기원, 발전, 변화되어 각기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마포), 모시(저포), 무명(목연), 명주, 주, 사, 라, 능, 금, 단 등이 오늘날까지 주로 사용되어온 전통직물이다.¹²⁾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섬유재의 성형방법에는 제직, 부직, 매듭 등이 있고, 표면 장식에는 자수, 누비, 금박, 이어붙이기, 염색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섬유재의 질감 분류

섬유재의 성형방법	제직	직기를 써서 옷감을 만드는 방법으로, 경사에 대하여 직각으로 위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경사 하나 또는 몇 개마다 위아래로 교차시켜서 만드는 것을 말함. 이런 전통직물의 제직방법에는 평직, 사직, 여직, 능직, 주자직, 금직 등이 있음	
	부직	섬유로 얇은 web을 만들고 이를 접착제 또는 열융착 기계적 방법으로 접착시킨 것을 말함. 전통적으로 양모나 기타 동물털을 이용한 축융포가 이러한 방법에 의한 직물로 주로 전립을 제작하는데 사용되고 있었음	
	매듭	끈을 소재로 하여 그 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어 죄는 수법의 일종으로 주로 궁중 의상이나 노리개, 주머니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매듭의 종류로는 대차매듭, 소차매듭, 나비매듭, 벌매듭, 매화매듭, 생죽매듭, 딸기매듭 등이 있음	
섬유재의 표면장식	자수	비탕천에 여러 색실로 무늬를 나타내는 조형활동으로 실을 꼬아 만든 끈사를 이용하여 청, 적, 황 등 원색중심으로 배색되어 있음. 이는 조금 거칠지만 소박하고 중후한 멋을 나타내며 여러 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주기도 함. 주로 흉배, 활옷, 약주머니, 팔찌, 안경집 병풍 등에 사용되고 있었음	
	누비	옷감의 겉과 안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출질하여 맞붙인 바느질법. 누비는 넓이와 솜의 두께에 따라 중누비, 세누비, 잔누비, 납작누비로 구분됨. 누비는 주로 저고리나 치마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성형방법	
	금박	금가루나 금종이를 사용하여 의복이나 장식품에 문양을 찍는 것으로 부금이라고도 하며 치마, 저고리, 땡기, 보 등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음	
섬유재의 표면장식	이어붙이기	쓰다 남은 지투리나 작은 조각천들을 하나하나 바느질로 이어 붙이는 방법은 주로 보자기에 많이 이용되었고 그 외 배갯모니 골무, 색동 등의 장식에 사용되었음	
	염색	주로 침염에 의한 것으로 체회염, 힐염, 목판에 의한 인회염 등은 소수만이 보여짐. 주로 사용된 염료는 적색·자색계의 홍화, 소목, 자초, 청색계의 남, 황색계의 황벽, 회화, 갈색계의 상목, 갈매 등임	

12) 민길자: 전통옷감, 빛깔있는 책들201, 대원사, p6, (1997)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의·식·주 생활환경 각 분야의 전통물품에 사용된 전통소재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각 전통물품들에 사용된 소재는 금속재, 토재, 석재, 지재, 목재, 초재, 섬유재의 7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타항목으로 유리소재나 말총소재 가죽소재 등이 일부 사용되었으나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타재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수집된 전통물품들을 표면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질감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로 성형방법에 의한 것과 표면장식에 의한 것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즉 기존의 다른 문헌에서는 각 소재별 하부 분류체계에 용도별 분류나 시대별 분류, 가공방법, 사용지역, 구체적인 재료의 종류 등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질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일부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독자적인 분류체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서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적 물품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형태나 색채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표면의 질감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점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특한 질감적 특성은 한국의 독자적인 이미지 표현을 가능케하며, 앞으로 디자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 질감을 모두 모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통물품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통물품은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 재료를 솔직히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나 색채를 통해보다는 표면질감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석재나 지재의 경우, 다양한 성형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장식보다는 구성방법에 의한 질감적 표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소재들 중 가장 장식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섬유재였는데 이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의복이므로 기본적으로 재료를 가공하여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다소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직물재의 표면처리방법을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소재들 중 가장 소박한 이미지의 소재는 석재나 초재로 이는 상대적으로 가공이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소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초재나 석재의 표면특성 등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색채와 형태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소재의 표면 질감 특성에 의해 전통소재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통소재의 다양한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자인의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는 각 소재에 사용된 고유한 표면처리방법을 다른 소재에 적용하여 새로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며 이는 창조적인 디자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경숙, 분청사기, 빛깔있는 책들 31, 대원사, 1990
- 광복, 색지공예, 빛깔있는 책들 82, 대원사, 1990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짚 문화, 1991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1995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아름다움, 1988
- 금광복, 색지공예, 빛깔있는 책들 82, 대원사, 1990
- 금복현, 전통부채, 빛깔있는 책들 103-13, 대원사, 1990
- 김명란, 생활도자 공예디자인, 세진사, 1998
- 김삼대자, 전통목가구, 빛깔있는 책들 159, 대원사, 1994
- 김성구, 옛기와, 빛깔있는 책들 122, 대원사, 1992
- 김성구, 옛 진들, 빛깔있는 책들 227, 대원사, 1998
- 김영원, 조선백자, 빛깔있는 책들 104, 대원사, 1990
- 김은영, 전통매듭, 빛깔있는 책들 5, 대원사, 1989
- 김현선, 한국전통문화 이해의 길잡이, 지식산업사, 1998
- 나선화, 소반, 빛깔있는 책들 101-3, 대원사, 1989
- 문화재연구회, 중요무형문화재5-공예기술Ⅱ, 대원사, 1999
- 민길자, 전통 옷감, 빛깔있는 책들 201, 대원사, 1997
- 박정근 외, 돌의 미를 찾아서, 다른세상, 2000
- 박찬수, 불교 목공예, 빛깔있는 책들 55, 대원사, 1996
- 상기호, 오색한지공예, 한림출판사, 1988
- 신동준, 석재 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영훈, 한옥의 조형, 빛깔있는 책들 20, 대원사 1989
- 심우성, 탈, 빛깔있는 책들 149, 대원사, 1994
-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도서출판 학고재, 1996
- 윤용이, 우리 옛 도자기, 빛깔있는 책들 226, 대원사, 1999
- 윤원태, 한국의 전통 초가, 재원, 1998
-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난영, 토우, 빛깔있는 책들 116, 대원사, 1991
- 이명희, 궁중 유물, 빛깔있는 책들 168, 대원사, 1995
- 이은복 외, 짚·풀 공예, 한국문화재연구소, 1998
-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8
- 이형재,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인병선, 짚문화, 빛깔있는 책들 1, 1989
- 인병선, 풀문화, 빛깔있는 책들 111, 1991
- 인병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짚문화, 현암사, 1995
- 임영주/상기호, 종이공예문화, 빛깔있는 책들 187, 대원사, 1996
- 임재해, 한국민중문화와 민속문화, 그리고 민족문화, 전통과 현대, 1998
- 장상진, 한국의 화폐, 빛깔있는 책들 209, 대원사, 1997
- 정동훈,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1994
- 정양모, 고려청자, 빛깔있는 책들 200, 대원사, 1997
-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진홍섭, 금불동, 빛깔있는 책들 132, 대원사, 1992
- 한영화, 전통자수, 빛깔있는 책들 6, 1989
- 홍정실, 한국의 연장, 한국야금 주식회사, 1996
- 홍정실, 유기, 빛깔있는 책들 2, 대원사, 1989
- 홍정실, 장식과 자물쇠, 빛깔있는 책들 102-14, 대원사, 1990
- 황수영, 반가사유상, 빛깔있는 책들 124, 대원사, 1992